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12.(목) 10:10 < 10.12.(목) 석간 > | 배포 2023. 10. 11.(수)

장관, 강도 높은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주문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서는 최악의 수급 상황에 대비해 준비키로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경영정상화 및 방만 경영 사례 재발 방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수요와 공급 상황 점검을 위해 10. 12.(목)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 장관은 "현재 한전은 약 47조 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떠넘길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 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난 10일에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지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다양한 방만 경영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특히 신경 쓸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이-팔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시장 동향도 논의하였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2/3와 가스의 1/3을 공급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양측 무력 충돌이 심화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 불안 및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우려되나, 현재까지는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지역으로부터 국내로의 운송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주변 산유국 대응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점검(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서기관	서성민 (044-203-5121)

붙임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

□ 회의 목적

○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 이행실적과 향후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협력 필요사항 논의

○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및 석유, 가스, 핵심광물 수급 상황 및 유가 영향 등 점검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3.10.12(목) 10:10~11:40 / 무역보험공사(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장관(주재), 에너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원전전략기획관, 에너지정책과장, 전력산업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석탄광물산업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등

- (기관) 한전·발전5사·한전KDN·한수원·한난·가스공사·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석탄공사·에너지공단 등 14개 공공기관

□ 세부 계획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10~10:15	('5)	모두 발언	산업부 장관
10:15~11:05	('5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참석 기관
11:05~11:35	('30)	이-팔 사태에 따른 에너지시장 동향 점검	참석 기관
11:35~11:40	('5)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

※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종료 시까지 공개